

수기공모 - 최우수작

생명으로 가는 길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 저도 당신 뜻에 맡깁니다.
다만 그가 당신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 자비의 손길에 머물 수만 있도록 허락하소서…….”

일몰 의 시간은 아녜데 희끄무레한 눈발 이 창가로 달려들어 내 마음처럼 시야가 어둡게 느껴진다. 벌써 이십 여일 지나도록 열이 떨어지지 않는 잠든 남편의 초췌하고 앙상한 몰골에 가슴이 저며 온다. 회진 때 주치의 선생은 CT 재검사를 의뢰했다고 전한다.

입원실에 기거한지 한 달이 넘었다. 아이들 겨울 옷가지 하나도 챙겨 주지 못하고, 김장철이 벌써 한참 지났으니 올 한해는 거의 병원에서 떠돌이처럼 살아 왔다

성당으로 내려왔다. 감실 앞에서 앉아 예수님을 바라본다.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놓아 드린다. 짓눌린 어깨를 펴 숨통이 트인다. 오로지 머리 둘 곳은 이곳 뿐이었다. 하루하루 가슴이 죄여오는 절박함에 주님만이 희망이다.

어젯밤에는 절망의 끝자락을 잡고 영영 울어댔다.

“주님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한번 기회를 주세요!”

주님의 침묵은 더 치절하게 울부짖게 하였



구 향 재(모니카)

monikakoo@hanmail.net

다. 그렇게 광기어린 시간이 흐르고 긴 침묵이 비몽사몽 착 가라앉아 풀려진 상태에서, 피땀에 범벅인 예수님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는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랐다. 분명 꿈도 아니고 또 깨어 있는 시간도 아닌 상태에서... 그 충격적인 의미를 바로 인식하였다.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예수님! 저도 당신 뜻에 맡깁니다. 다만 그가 당신 사랑을 깨닫고, 하느님 자비의 손길에 머물 수만 있도록 허락하소서…….” 라고 기도하며 고인 물을 퍼내듯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열의 원인은 방사선으로 약해진 식도의 상처로 인해 음식물이 기도로 흘러들어 간 것 같다고 당분간 ‘금식’ 이라고 간호사가 전한다. 남편은 칠개월 전쯤 심한 목감기 증세로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식도암 말기에 해당된다는 과장님의 진료소견서를 받았다. 순식간에 세상이 무너져 내려 덮친 듯 혼절하고 얼마 동안은 해마다 정신을 차려 남편을 입원시키고 처방대로



항암주사와 방사선 치료를 번갈아 받으며 병실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이슬람학문을 연구하기 위해 동경대학원 객원연구원으로 적을 두고 논문을 쓰기 위해 일 년에 두어 차례씩 일본을 내왕하면서 지쳐 있었다. 발병 때도 바로 그때쯤이었고, 증세가 악화된 것도, 막무가내 옹고집으로 흥부외과 교수님의 만류에도 십여 일 이상 일본을 다녀온 후 현저하게 체력이 감소하고 증세가 악화된 즈음이다. 남편의 완고한 성격을 어찌지 못했다.

그러나 하느님은 결국 그를 겸손한 아들로 부르시고, 새 생명을 약속하셨던 것을 그 이후에 알게 되었다. 그의 마지막 부탁을 주님께서 모두 들어주신 것을 확신한다.

남편은 꿈에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그를 안아주며 '나를 믿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병문안 오신 막내딸의 친구 부모님께 들려 드리고 신부님을 모셔와 세례를 주시도록 부탁을 드렸다. (그는 이슬람교에 심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개종하도록 권할 수가 없었다.)

극적으로 남편의 세례는 이루어졌다. 신부님께서 병실로 찾아오셨고 남편은 최선을 다해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정갈한 모습의 정장으로 차려입고 세례준비를 하였다. 그는 바오로로 다시 태어났다. 마치 다마스쿠스에서 회심한 바오로처럼 남편은 온전한 하느님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느 날 밤에 성당에서의 나의 절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다. 기쁨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 속으로 가득찼다. 그리고 십 일 후에 남편은 평화 가운데 임종을 하였다. 이제 더 이상 울지도 실망도 않는다. 이미 주님께서 남편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그는 믿었다. 그리고 지상에서 그의 몫까지 살아야 하는 나를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이 주님의 선물인 것을 두고두고 감지했다

나는 약해진 몸을 추스르는 오십여 일 동안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직업을 찾도록 기도드렸다. 전에 친구의 부티크 대리점 운영을 몇 년간 도와준 일이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직업을 찾아 새롭게 태어나기를 기도하였는데 '고통 있는 곳으로 가라'라는 응답의 말씀이 '병원'임을 알아 차렸을 때, 주보에 실린 <빈첸시오 간병인 모집> 글이 눈에 확 들어왔다. 명동회관으로 담당 수녀님을 찾아뵙고 소정의 절차와 자격인증 교육으로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였다.

일 개월 후 나는 간병인 유니폼을 갈아입고 새로운 삶에 희망을 걸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환자를 만나고 친절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육신이 편안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간병을 하였다. 남편의 고통을 지켜보던 연민으로, 때로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로지 시선을 환자에게만 고정했다. 그동안 남편이 충분한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주어 어렵지 않게 병원생활을 잘 해내었다. (이점 남편에게 고맙고, 또 일할 때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몇 개월 지나 아이들은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으로 충격이 컸고, 또 엄마가 옆에서 다독이지 못하고 돌보아 줄 수 없어 심적 타격이 컸었다. 방황하는 그 모습이 답답하다. 힘겹게 지탱하던 힘이 싹 빠지고 심한 갈등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을 돌보아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좀 더 수월한 직업을 찾아야 할지를.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환자의 잠자리를 잘 돌보고 자정이 넘어 성체 조배를 하면

극적으로 남편의
세례는 이루어졌다.
신부님께서 병실로
찾아오셨고
(중략)
그는 바오로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십 일 후에
남편은 평화 가운데
임종을 하였다.



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였다.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 들어갔다...” (탈출 14,22 참조) 그날 밤 들려주신 말씀이었다. 내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느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순식간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신바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파라오 군대 같이 달려드는 생활의 여건들(아이들 등록금 생활비, 적막함, 우울증 등등)을 따돌리고 앞만 바라보고 현실의 위협에서 탈출해야 한다. 그리고 몇 개월 후 그 바다 한가운데서 탈출하였다.

성모병원 촉탁 간호보조원으로 채용되어 중환자실에서 일하게 되었다. 모든 상황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의 길을 예비하고 계셨다. 한 단계씩 훈련을 통해 새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해주신 것이다.

삼교대로 매일 출퇴근을 하게 되어 아이들도 돌볼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아이들에게 심적 고통의 시간은 자신들을 성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주었다.

죽음과 삶이 교차하는 긴장의 연속인 중환자실 근무를 하면서 곳곳에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치유하시는 사랑을 느낀다. 환자를 향해 건네지는 그 모든 손길, 의사를 통해서, 간호사들의 여린 손끝에서 그 하나 생명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에너지가 이분들의 손길에서 흘러 들어간다. 밖에서 환자 가족으로 슬픔과 원망과 한이 차올 때 누구도 볼 수 없는 여릿여릿한 시간 속에서 확실하게 생명의 신비가 전류처럼 흐르고 의료진들의 일사불란한 숙련된 손길에 치유는 일어난다. 얼마나 보람되고 멋진 일인가? 하느님과 충실하게 함께하는 생명의 재생작업이 얼마나 위대한가? 비록 늙은 간호보조원이지만 딸과 같은 간호사와 일하면서 행복했고, 열정

을 갖고 일했다. 좌충우돌 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간호사들의 따뜻한 배려를 통해 중환자실에서의 6년간 세월은 육십이 훨씬 넘는 나의 삶에 마치 큰 광맥을 품고 그것을 찾아낸 시간과 같다. 신앙 안에서 거듭나기 위한 광야의 시간이었고, 제삼의 위치에서 바라보는 ICU는 모든 불순물을 걸러 재생하는 용광로의 끌어오르는 열기를 느끼는 위대한 삶의 자리였다.

나의 시작은 환자 보호자로, 울부짖고 절망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짧은 시간 직업 간병인으로 환자 곁에 그들과 함께 머물며 위로하고 연민하고 아파했고, 그리고는 생과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중환자실에서 치유의 신비를 느끼며 생명의 아름다움 그 소중함으로 환자의 오물까지 소홀할 수 없는 그 재생의 기쁨을 가족들보다 더 찌릿하게 속마음으로 감사기도를 드렸고, 이렇게 남편의 이정표가, 10여 년간 병원의 문을 열고 나오는 길목까지 지켜주었고, 비로소 주님의 인도로 영적 간병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 별난 이야기를 간단히 한다.

내과 중환자실 파견 첫날 아침 긴박한 상황 CPR이 방송으로 흘러나왔다. 달려온 의사는 환자의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간호사들의 손놀림은 바쁘다. 이십대 후반 젊은 여성이다. 보호자로 달려온 그 어머니는 혼절 직전이다. 의자에 앉히고 등을 다독이며 위로의 말로 가족 관계를 물었다. 아버지가 지금 김포에서 오는 중이고 이혼을 했고 아이는 없다고 대답하면서 울음이 복받친다. “저 수녀님 모셔서 기도해 달라고 할까요…….” 그분은 내손을 꼭 잡고 “저 애가 퇴원하면 성당 다닌다고 했는데……. 흑흑”. 연민으로 답답했다. 잠시 후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었다. 나는 재빨리 간호사에게 전하여 수녀님 오셔서 세례를 해주시도록 하고 김사물과 약 처방전을 챙겨 병실을 나왔다. 20여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걸어
들어갔다...”
(탈출 14,22 참조)
그날 밤 들려주신
말씀이었다.
내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느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순식간에 어두움이
사라지고
신바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분 지나서일까 병실로 들어서는데 수녀님께서 “마리아라고 대세 했어요.” 하신다. 감사한 목례를 하고 병실로 들어서 환자를 보니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양손을 잡고 평화 가운데 딸을 지켜본다. 좀 전의 상황과 아주 달라졌다. 모든 게 고요하다. 잠시 후 EKG모니터가 꺼지고 환자는 마리아로, 다시 천상의 딸로 태어났다. 주님은 잠시 여유를 주셨다. 그 환자의 애원을 들으시고 당신 딸로 그를 입적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의 진통처럼 느껴진다. 눈에 보이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 영원한 삶의 준비라고 늘 생각한다.

병원의 계약기간이 6개월쯤 남아있어 퇴직 후 봉사활동은 호스피스를 선택하고 이미 그 교육도 끝냈다. 그러나 극적으로 세례를 받고 떠난 마리아 씨는 또 다른 나의 선택을 재촉했다. 그 마리아 씨를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의 도전을 받는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 한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느님, 어떤 영혼도 제외시키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은 신비스런 소명으로 나를 사로잡았다. 바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당신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불가능을 믿음으로 도약했다. 64세에.

교리신학원에 입학하여 오전 수업(6시간), 병원에서는 이브닝과 나이트 근무 하고, 수면은 고작 4시간, 고3학생 같은 1학기가 끝나고, 병원일도 계약만으로 되었다. 정든 간호사님들께 감사한 정을 나눌 시간도 없이 나는 어려운 학업에 열중하였고 마침내 신학원 졸업을 하고 선교사로 하느님의 영적 간병사로 주변에 중환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방문교리를 하게 되었다.

납편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남이 아닌 새로운

인내와 극기의
수없는
선택의 길에서
어둡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세상의
길에서 조금씩
회개하며 하느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는다.

나의 삶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할 길을 제시하고 인내와 극기의 수없는 선택의 길에서 어둡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기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세상의 길에서 조금씩 회개하며 하느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깨닫는다. 병원 일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그 의미가 얼마나 큰 선물로 생명으로 나가는 길임을 감사한다. 거기서 마른 땅을 밟고 바다 한가운데에 생명의 길을 찾았고 불평불만으로 가득찬 광야에서 오로지 하느님께 마음을 둬서 그 역사를 바라보며 10여 년 병원생활의 체험은 살아계신 하느님과 동행한 시간임을, 고백하며,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 🐦

▶ 28p에서 이어짐

서로의 장단점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감정을 함께 나눈다. 그들은 하찮은 일이라도 나에게 의논하면서 깊은 상처도 공유한다. 지금 나는 아픈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나 환자들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다. 그것은 그들이 아파할 때, 눈물 흘릴 때, 두려워 할 때, 외로워할 때, 죽음을 생각할 때, 그런 시간들을 나 자신이 경험했으므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다. 간호사의 길과 유방암 환자들과 이 길을 함께 견도록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가끔은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 어떤 정해진 지점을 향해 가다 돌부리에 넘어질 때도 있었고, 나무에 의해 햇볕이 가려질 때도 있었고, 언덕이 힘들어 숨을 몰아쉬면서 올라 갈 때도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고지는 인간인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정하신 그곳이리라 생각한다.

오늘도 “평화의 주여, 하찮은 나지만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이 성경 구절을 기쁜 마음으로 되새기면서 출근길에 나선다. 🐦